

#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과 《남가기(南柯記)》의 비교 연구\*

盧惠淑\*

## <目 次>

1. 서론
2.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과 《남가기(南柯記)》의 시대적 배경
3.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과 《남가기(南柯記)》의 主題 思想
4.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과 《남가기(南柯記)》의 寫作技巧
5. 결론

## 1. 서론

당대 전기(傳奇) 소설 중에 몽(夢) 소설은 《침중기(枕中記)》와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이다. 그리고 명대 희곡 중에 당현조(湯顯祖)의 사몽전기(四夢傳奇)는 몽을 구성으로 썩여진 희곡이다. 그 중에서 《남가기》는 《남가태수전》의 영향을 받았다. 《남가태수전》의 작자 이공좌(李公佐)와 《남가기》의 작자 당현조는 현실 속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운한 인생을 살았다. 이것은 작자의 시대 배경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서의 불만족을 몽이라는 구성을 통하여 소설과 희곡으로 표현하였다.

이 두 작품은 당 전기와 명 전기의 시대적 차이와 소설과 희곡이라는 장르의 차이가 있지만, 몽의 운영과 주제 사상 등의 공통점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가태수전》과 《남가기》를 시대적 배경과 주제사상, 그리고 寫作技巧를 비교해 보았다.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8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2.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과 《남가기(南柯記)》의 시대적 배경

### 1) 《남가태수전》의 시대배경

《남가태수전》의 작자 이 공좌(李公佐)는 대종(代宗)시기에 태어나서, 선종(宣宗)시기의 중초에 사망하였으며, 80세의 고수를 누렸다.<sup>1)</sup>

그는 원화(元和) 연간 중반에는 강서종사(江西從事)를 지냈으며, 후에는 관직을 그만두고 장안에 돌아가 회창(會昌)초에는 양부녹사(楊府錄事)를 지냈다. 그의 정치 생애는 결코 평탄치 않았는데, 대종 2년에는 사건에 연류 되어 두 개의 관직을 박탈 당하였다. 그 당시에는 우선객당(牛仙客黨)인들이 새롭게 득세하였는데, 이는 바로 이 덕유당(李德裕黨)이 집정한 후였다. 만조(滿朝)인들은 철저히 바뀌었고, 민감한 가운데 서로 도왔으나, 선양함이 한 세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 공좌(李公佐)는 결미에 이르기를:

“그러나 벼슬자리를 도둑질하여 탐생하고 있는 무리들에게는 경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다. 후세의 군자들은 이 남가의 꿈을 우연한 일이라고 무시하고 명성이나 지위가 있다고 해서, 이 천지간에서 교만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sup>2)</sup>

또 찬에 이르기를:

“부귀가 자극하고 권세 나라를 움직여도, 달인의 눈에는 개미의 무리와 무엇이 다르리”<sup>3)</sup>

이러한 말들 속에서 우리는 당국을 질책하려하는 그의 의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이 작품이 그가 말년에 관직을 박탈당한 후에 썼음을 알 수 있다. 《남가태수전》에는 이 작품이 정원(貞元)18년 가을에 쓰였다고 돼있어서 실제 저작 년대는 불분명하다. 이는 당시의 당파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으며, 이를 경험으로 《남가태수전》을 지었다.

1) 汪璧疆, 《唐人小說》, p.91.

2) 而竊位者生冀將爲戒, 後之君子, 幸以南柯爲偶然, 無以各位驕於天壤間云

3) 達貴極祿位, 權傾國都, 人視此, 蟻聚何殊

이 작품은 형식과 기교면에서 《침중기(枕中記)》보다 더 훌륭하였다. 예를 들어 「개미굴(蟻窟)」에 빗대어 만조(滿朝)의 신귀족들을 「개미촌락(蟻聚)」이라고 욕한 것과 같은 것들은 당시의 사회 및 정치에 대한 경멸과 풍자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어서 다른 작품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남가태수전》의 작자 이공좌는 회창(會昌)연간에 양부록사(楊府錄事)를 위하여 참군할 때에 “오상송안(吳湘訟案)”<sup>4)</sup>에 연류 되었으나, 대중(大中)연간에 우당(牛黨)이 집정할 때에 이르러,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이에 이당(李黨)의 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도형에 처해지거나 강직되었다. 이당(李黨)의 우두머리인 이덕유(李德裕)가 애주사호(崖州司戶)참군(參軍)에 강직된 이외에, 나머지 검남서천절도사(劍南西川節度使) 광록대부(光祿大夫), 사부상서(史部尚書) 동평장사(同平章事), 성도윤상(成都尹上) 주국용(柱國龍) 등으로부터는 서군개국공식읍(西郡開國公食邑) 이천호를 돌려받았으며, 호남관찰사(湖南觀察使)에게는 책임을 물었다. 계주척사(桂州刺史) 계관방어사(桂管防禦使) 정아(鄭亞)는 순주장사(循州長史)로 강직 되었으며, 전 준남관찰판관(淮南觀察判官) 위형(魏絛)은 길주사호(吉州司戶)로 강직되었다.

《침중기(枕中記)》 노생(盧生)의 「출장입상(出將入相)」의 가치관은 당조(唐朝)의 정치제도 하에서의 사인(仕人)들의 인생관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남가태수전》을 통하여, 중당 이후로부터 만당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제도상에 있었던 변화의 흔적을 알 수 있다. 성당 이전에는 보병제가 행해졌다. 안정된 정치 상황에서는 재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병사들을 이끌고 정벌에 나섰으며, 휴전 상태에서는 여전히 재상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종(玄宗)때에 이르러서야 점차 바뀌었다. 이 시기에는 변방의 토번들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장기 주군이 설치되었으며, 보병제가 막(幕)병제로 바뀌었다. 장군은 서북 변방에 징집되어 가고, 동란은 몇 년간 지속되었으므로, 조정에 들어 올 기회는 적어졌다. 이러

4) 《新唐書》卷181李紳傳：“會昌時...部人訟湘受贓狼藉，身娶民顏悅女，紳使觀察判官魏絛鞫湘罪，明白論報殺之...諫官屢論列，詔遣御史崔元藻覆案，元藻言湘盜用程糧錢有狀，娶部人女不實。按悅嘗爲青州衙推，而妻王故衣冠女，不應坐。德裕惡元藻持兩端，表貶崖州同戶參軍，宣宗立，德裕去位，紳已卒...汝納爲湘公言...顏悅故士族，湘罪皆不當死，紳枉殺之...比諫誅紳三官，子孫不得孫仕，貶德裕等...”

한 제도는 현종(玄宗)대에 와서도 여전히 성행하였는데, 예를 들어 우선객(牛仙客)은 군인 출신이기는 하였으나, 토번을 막는데 공로가 있었음으로, 한 번 현종을 만나고는 총애를 받아 재상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야기하게 된다. 안록산(安祿山)이 전공을 세우자, 현종이 그도 불러 재상의 벼슬을 주려고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의하여 성공하지 못했다. 현종은 또 요령(遼領)의 제도를 창설하여 장군과 재상을 서로 겸할 수 없었던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였다.<sup>5)</sup> 이리하여 중당시기에는 왕왕 큰 공을 세운 자들이 모두 입각하여, 재상 또는 요령(遼領)、절도사(節度使)가 되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장군출신이 재상이 되는 것(出將入相)」은 문무가 겸비한 인재로 보였음으로, 이것을 가장 큰 영광이며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만당시기에 와서는 군용할거의 국면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구체화되었음으로 사람들의 생각도 이에 따라 변화 하였다. 즉 할거하여 독립자존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으며, 재상은 약하고 힘없는 「사대부」 정도로 생각하였다. 환관과 변진의 결탁 하에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이미 경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침중기(枕中記)》가 「장군출신이 재상이 되는 것(出將入相)」의 제도가 아직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의 작품임을 말하며, 이와 반대로 《남가태수전》은 만당시기 변진이 극단적으로 발호하던 시기의 작품임을 설명한다.<sup>6)</sup> 《침중기》의 노생(盧生)은 진사에 올라 출세를 하였다. 《남가태수전》의 순우분(郭于焚)의 말에 따르면 「남자들은 조상의 연줄로 관직에 오른다.(男以門蔭授官)」인 것이다.

당척언(唐摭言) 일 권 에서 말하기를 :

“진사과는 수나라 대업 중에서 시작되어, 정관 시기에 성하였으며, 영원히 빛날 때에, 진신이 비록 지극한 벼슬이라지만, 진사를 지내지 않은 자는 끝까지 아름답게 되지 못 하리라. 7)”

이러 하였기 때문에 설원초(薛元超)가 재상을 지내는 면서, 「시중 진사로 급제하지 못한 것(始不以進士擢第)」을 평생의 3대 한(恨)의 하나로 여긴 것도 이 때문

5) 《新唐書》卷101蕭瑀傳.

6) 劉開榮, 《唐代小說研究》, p.169.

7) 進士科始於隋大業中, 盛于貞觀, 永徽之際, 縉紳雖位極大臣, 不由進士者, 終不爲美

이다. 《침중기》가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이다. 그러나 과거제도가는 시문으로 관리를 선발하면서 악습이 없지는 않았다.

고종 상원 원년(六七四), 유요랑(劉嶠郎)이 일찍이 상서(上書)에서 말하기를:  
“국가는 예부로 하여금 효성이 지극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문장 갑을을 시험하여, 천하의 명성을 얻게 하였다. 재주에 힘쓰고, 덕행에 힘쓰지 않으니 …오늘 만언의 문장을 외운다 해도, 무엇이 이치에 부합되는가? 문장이 뛰어나도 사람을 감화시키지 못한다면?8)…”9)

경학(經術)으로 이름을 날렸던 정담(鄭覃), 형양인(滎陽人)은 바로 덕종(德宗)시기 재상 정순유(鄭珣兪)의 아들이다. 그는 부친의 음보홍문(蔭補弘文)의 헤아림을 입었으나, 문장으로 관리를 등용하는 것을 반대하던 인물이었다.

“(覃) 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사의 공허함과 박함을 통탄하여, 이 과를 폐할 것을 건의…(云)남북조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은 문장으로 본질의 우월을 따졌기 때문이다. 관리는 재능으로만 등용하면 되지, 문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문인들은 대개 경망스럽고 야박하다.10)…11)

정담(鄭覃)은 후에 재상이 되어 여러 차례 진사과를 폐할 것을 청했다:  
문종(文宗)은 배우기를 좋아하며 옛것을 즐겼다. 정담은 경학으로서 재상이 되었으나, 진사의 경망스럽고 야박함을 아주 싫어하여, 여러 차례 그만둘 것을 청하였다.

문종(文宗)이 말하기를:  
“돈후함, 경박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사과로 관리를 등용한지가 200여년이 되었으니, 황급히 폐할 수가 없어서 그만둘 수가 없다.12)13)

이덕유(李德裕)도 과거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덕유는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못했으나, 시문에 재주가 많았고, 과거에 응시

8) 國家以禮部爲孝秀之門，考文章于甲乙，故天下響應，馳驅于才藝，不務于德行。…至知日誦萬言，何關理體？文成七步，不足化人？…

9) 《通典》卷17 選舉5.

10) 不喜文辭，痛進士浮薄，建廢其科…(云)南北朝所以不治，文采勝質也，士惟用才，何必文辭？又言文人多佻薄

11) 《新唐書》卷165 鄭覃傳.

12) 敦厚，浮薄，色色有之。進士科取士二百年矣，不可遽廢，因得不罷

13) 《新唐書》卷44 選舉志上.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재상 길보는 아들에게 권면 하였다. 위공(衛公)이 이르기를:“좋은 말과 당나귀는 함께 가지 않는다.(好驢馬不入行)”<sup>14)</sup>

덕유는 조군(趙郡)사람이며, 현종(憲宗)시기의 재상 이길보(李吉甫)의 아들이다. 그는 음보입사(蔭補入仕)를 찬성했던 사람이다.

덕유가 말하기를:

“신은 명제가 없어서, 벼슬에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신은 조정의 신하로서 벼슬길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계획에 따라 장원급제하였다. 이후 집에는 《문선》을 두지 않았다. .... 그러나 조정의 벼슬은 반드시 공항의 자제로 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어린 시절부터 그 업을 익혀왔고, 관청의 예의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안다. 평범한 선비들이 재주가 있어도 익혀서 될 일이 아니다.”<sup>15)16)</sup>

정담(鄭覃)과 이덕유(李德裕)는 모두 부친이 재상이어서 음보입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며, 후에 또 모두 재상을 지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러 번 진사과를 없앨 것을 건의 하였으나, 결국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또 음보입사를 찬성하였었는데, 《남가태수전은 바로 이 시대에 쓰인 작품이다.

《침중기》의 노생이 오성녀(五姓女)를 취한 것은 지체가 높은 집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서 이록지사(利祿之士)하여 벼슬을 높이기 위한 첩경이라는 관념이 짙다. 이러한 혼인관은 폐단양생(弊端養生)을 초래하였는데, 태종과 고종시기에 와서 이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모두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으며, 결국 씨족관념의 지배를 받았던 이러한 사회풍조는 당조(唐朝) 전체 사회에 풍미하였다. 그러나 《남가태수전》 순생(淳生)이 부마에 책봉 된 사실로부터 문벌위주의 씨족관념이 이전에 비하여 강조되고 있지 않으며, 황실 공주와 사족과의 혼인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혼인 대상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14) 劉棟, 《唐語林》卷1.

15) 臣無名第, 不當非進仕, 然臣朝天寶末以仕進無他岐, 勉強隨計, 一舉登第, 自後家不置《文選》, ..... 然朝廷顯宦, 須以公卿子弟爲之, 何者? 少習其業, 臺閣之儀, 不教自成, 寒士縱有出人之才, 固不能閑習也.

16) 《新唐書》卷44 選舉志上.

신당서(新唐書) 권166 두우전(杜佑傳) 부(附) 두중전(杜棕傳)에 이르기를:  
“기양(岐陽)공주는 헌종(憲宗)이 총애하는 딸로서, 옛 규례에 따라 여러 장군 가문을 선발하였으나 황제가 시종 재상 이길보(李吉甫)의 아들을 택하고 다른 자리는 모두 거절하였으므로 두중(杜棕)만이 선발되었다.<sup>17)</sup>”

또 백민중전(白敏中傳)에 이르기를:  
“초대 황제 선종(宣宗)이 총애하였던 만수공주(萬壽公主)는 신분이 낮은 선비에게 시집가려 하였으나, 시랑 정호가 진사에 선발되어, 혼인에 응했던 권문세가들 중에서 다시 뽑게 되었다. 호(顥)와 노(盧)씨의 결혼은, 결국 결혼만 하고 만 것이어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에 그쳤다.<sup>18)</sup>”

이렇게 황가의 여자와의 결혼을 수치로 여김으로 해서 황실공주를 오성녀(五姓女)보다 귀하지 않게 여겼다. 후한 재물을 답례로 얻고 나서야 시집가는 풍기의 영향 하에 문벌이 높은 사족만을 상대로 혼인하는 황실공주와 무사의 혼인은 더욱 다채로운 풍조가 있다. 그러므로, 《남가태수전》의 작자는 순생(淳生)이 진사과에 급제하는데 필목을 들이지 않고, 그의 유희 신분내지는, 금지(金枝)공주와 혼인하는 부마의 신분에 더 치중하였다. 이렇게 작자는 당대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엿보고 있다.

당대의 세족들은 당나라 왕실의 혈통이 순수하지 않은 것, 공주의 방자함과 재혼, 낮추어서 시집가는 것 등이 세족의 예법에 어긋남으로 모두 공주를 아내로 맞으려 하지 않았다.

《남가태수전》의 저자 이공좌가 정원(貞元) 18년 가을 이후에 이 전기를 쓰기 시작한 사실을 자술하고 있으므로, 이 전기가 완성되었을 때는 아무리 빨라도 정원(貞元)18년 가을 이후 일 것이다. 당시는 덕종(德宗)황제가 즉위한지 이미 20여년이 되었으므로, 덕종도 당연히 세족들이 공주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정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즉위 초에 이미 명을 내려 공주가 낮추어 시집가는 예법을 개선하여, 세족과 영합하려 하였다: 「건중7년7월... 옛 관례에 따라 황

17) 岐陽公主, 帝(憲宗)愛女, 舊制選多威理將家, 帝始詔宰相李吉甫擇大臣子, 皆辭疾, 惟杜棕以選.

18) 初帝(宣宗)愛萬壽公主, 欲下嫁士人, 侍郎闕巽薦進士弟, 有闕闕敏中以充選, 顥與盧氏婚, 將受室而罷, 銜之.

희가 낮추어 시집갔고, 시부모가 반대하여 돌아오는 것에 허용하지 않았다. (建中元年九月… 舊例皇姬下嫁, 舅姑反拜而歸不答.)」<sup>19)</sup> 뿐만 아니라, 덕종의 딸들은 하나도 재혼한자가 없었으며, 이후 공주들의 풍기도 점차 개선되었다. 《남가태수전》의 저자 이공좌는 선종(宣宗)대 중초에도 견재하였다. 덕종(德宗)으로부터 선종(宣宗)에 이르는 시기에, 헌종(憲宗)의 딸 기양공주의 부마인 두종(杜崇)은 그 지위가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나,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하게 여겼다. 심기제(沈既濟)의 《침중기(枕中記)》는 개원(開元)7년의 일을 쓰고 있다. 그는 당시 사관(史官)이었으므로 당시의 선비들이 오성지녀(五姓之女)를 좋아하는 정황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공좌의 《남가태수전》은 정원(貞元)년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순우분은 당시 군내의 명망을 누리고 있는 성씨는 아니었으나, 이때에 이미 공주지풍(尙主之風)이 이미 개선되어 있었기에 부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2) 《남가기》의 시대적 배경

탕현조(湯顯祖)의 다른 하나의 희곡작품인 《남가기》도 꿈의 이야기이다. 당대 전기 소설 《남가태수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邯鄲記〉와 마찬가지로 《남가기》도 역사 이야기를 빌어 현실을 평의(評議)하고 있다. 명대(明代)의 만력제(萬曆帝) 주익균(朱翊鈞)은 제위에 오른 이후, 장거정(張居正)을 재상으로 하였다. 장거정은 10년간의 연이은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그가 죽은 후 그가 단행하였던 개혁은 실패하여 끝을 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개혁에 대하여 탕현조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는데: 「강릉의 장공이 강인함으로 어린군주를 도운 사실은 역시 다스리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江陵張公以剛扶冲聖之哲而史, 亦不可謂不治也)」<sup>20)</sup> 뿐만 아니라, 그는 장거정의 개혁 실패에 대하여서도 이른바 아쉬움이 있었다. 그는 또 장거정의 10년 집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거정 정권의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함이었다. 「강하

19) 《唐會要》卷6.

20) 〈湯顯祖之張洪陽相公七十壽序〉

면서도 욕망이 있고, 무리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경박함을 갖게 하였다(剛而有慾, 以群私人囂然壞之)」<sup>21)</sup> 그의 이러한 시각은 순우분(淳于棼)의 꿈을 통하여 굴곡적으로 《남가기》라는 희곡에 반영되었다.

당현조가 《남가기》라는 작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순우분이란 인물은 《한단기》에서 단지 공명, 이익과 관록을 추구하는 노생과는 다르다. 그는 정치상에서 다소의 활동이 있었으나, 중국에 가서는 관리사회에서 타락한 인물의 전형이 되었다. 순우분은 작은 것에 구애 받지 않는 호쾌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다. 즉 자칭 「풍운을 간파하고 천금을 가르는 현명하고 호방한 유랑자 이다. 18괴와 같은 무예를 갖고 있으며, 오두초미의 가운을 감지한다.(風雲識透, 破千金賢豪浪游. 十八般武藝吾家有, 氣衡天楚尾吳頭)」<sup>22)</sup> 그는 정치상에서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남가태수전》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실현한다. 순우분은 호기협풍(豪氣俠風)이 있었으나, 꿈에서 깨어나면서 이런 것이 사라진다. 당현조는 순우분의 타락을 통하여, 자신이 정치상에서 걸어갔던 하나의 실패의 길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묘사에 기탁하여 명대의 암흑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당현조가 지은 《남가기》는 당시 학술계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었다. 당시 학술계의 정황은 어떠했는가?

양계초(梁啓超)가 말하기를:

“명나라 조정에서는 팔고문(八股文)에 의하여 관리를 선발하였으므로 일반적인 학자들은 영락황제(永樂皇帝)가 정한 「이성대전(理性大全)」을 제외한 이 밖의 것은 한권도 읽지 않았다. 양명(陽明)은 호걸지사(豪傑之士)의 한 사람이다. 그의 학술은 마치 약침(藥針)과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하게 함으로, 오백년의 도학을 종료하게 할 수 있었으며, 아주 큰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 최후의 이백삼십 년 간에 이르러, 도학파의 대본영인 전자(前者) 「동림(東林)」, 후자(後者) 「복사(復社)」 등은 모두 학술단체의 명의로 정당식(政黨式)의 활동을 실행하였다. … 그러나 당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의권세를 등에 업고여 말하면, 소위 말하는 명조의 「사대부사회(士大夫社會)」는 「팔고선생(八股先生)」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군중운동은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청류(清流)」, 「탁유(濁流)」 모두에서 팔고선생이 가장 큰 세력을 점하고 있다. 「동림(東林)」, 「복사(復社)」 에

21) 〈湯顯祖之論輔臣科臣疏〉

22) 《南柯記》第二齣「俠概」

비교적 많은 몇 명의 정인군자(正人君子)가 있다고 하나, 특 털어 놓고 말하면, 기실은 왕양명(王陽明)의 큰 기발아래의 한 무리의 팔고 성생들이 위충형(魏忠賢) 쪽의 큰 기발아래의 한 무리의 팔고 선생들과 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양명 쪽의 미류들도 방종하기를 말미 아닌데,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이탁오(李卓吾) 등은 그야말로 하나의 「과계승(花和尚)」으로 변하였다. …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학술계의 최후의 한 장막의 비극이다.”<sup>23)</sup>

고로 명대의 학술은 그 끝에(末流) 이르러 공소(空疎)함을 면할 수 없게 되어 반동이 일어났다. 이는 시대 조류의 자연적인 추세의 결과이다. 당 현조는 이러한 반동 조류의 선구자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는 그러한 위선자를 가장 반대 하였고,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성리학을 경멸하였으며, 그는 희곡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 3.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과 《남가기(南柯記)》의 주제 思想

《남가태수전》의 작품에서 작자의 의도와 수법은 모두 일치하며, 작품의 사회 심리적 기초도 일치하고 있다. … 부귀공명도 허황한 것인 만큼, 인생에서 하나의 진정한 귀착점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불도사상이 조합된 일종의 청정자연의 생활이다.<sup>24)</sup> 그러나 이공좌는 오히려 불교를 숭상하는데, 이러한 것이 작품 중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sup>25)</sup>

23) 梁啓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 梁啓超云:

“明朝以八股取士, 一般學子, 除了永樂皇帝所欽定的「理性大全」外幾乎一書不讀, 陽明是一位豪傑之士, 他的學術像打藥針一般, 令人興奮, 所以能做五百年道學結束, 吐很大光芒…… 到最後二三十年間, 道學派大本營, 前有「東林」, 後有「復社」, 都是用學術團體名義, 實行政黨式的活動…… 但黨勢漸成之後, 依草附木之人日多, 也不免流品很雜. 總而言之, 明朝所謂「士大夫社會」, 以「八股先生」爲土臺, 所有群衆運動, 無論什麼「清流」「濁流」都是八股先生最佔勢力, 「東林」「復社」雖比較的多幾個正人君子. 然而打開天窗說亮話, 其實不過是王陽明這面大旗底下一群八股先生, 和魏忠賢那面大旗底下一群八股先生打架. 何況陽明這邊的末流, 也放縱得不成話, 如何心隱李卓吾等, 簡直變成一個「花和尚」…… 這更是前一期學術界最後的一幕悲劇”

24)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p.241.

25) 吳志達, 《唐人傳奇》, p.80.

김조풍(金兆豐)이 중국통사에서 이르기를:

“명승 현장(玄奘)이 출현하였던, 당태종 정관(貞觀) 3년 ... 인도에 백여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성인의 유적을 두루 알아보고, 명사를 방문하고, 마침내 경전 육백오십 여부를 가지고 장안에 돌아온다. 태종은 일찍이 거금중(居禁中)에 유하게 하여 사원에서 번역에 종사하라고 명하였으며, 친히 이를 위하여 삼장성교(三藏聖教)의 서를 썼다. 고종(高宗)은 이를 위하여 성지의 표지(聖記)를 저술하여 대자은사(大慈恩寺)를 세웠고, 현장(玄奘)에게 명하여 거하게 하였다. 현장은 도합 천삼백여권의 경론(經論)을 번역 하였으며, 또 서역(西域)기를 지어, 그 지리와 풍속을 서술하였는데, 제일 상세하고 확실하였다. 고종(高宗) 함형(咸亨) 2년, 의정(義淨)역시 중국에서 출발하여, 남해를 항해하여 인도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는 25년 후에야 돌아왔으며, 그동안 30여개의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백여부의 불전 및 이에 관한 운서를 갖고 돌아왔다.”<sup>26)</sup>

인도의 불법(佛法)이 동한(東漢)시기 중국 대륙에 전파되기 시작된 이후, 이는 중국 도통(道統)의 낡은 전통과 본위문화(本位文化)의 고립관계를 타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儒家), 도가(道家)와 함께 세 세력으로 정립되었다. 불교는 유도(儒道) 학설과 충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의 내재적 함의를 향상 시켰다. 불법은 본위문화 가운데의 종교적인 관념을 개진하였고, 윤회(輪廻)의 생사관도 충실히 하였다. 그것의 전통문화에 대한 개조와 혁신 작용은 실제로 상층의 학술 사상으로부터 실제 사회생활과 신앙까지를 관철 하였다. 성당(盛唐)은 「도(道)」를 국교(國敎)로 하였으나, 중당(中唐)과 만당(晩唐)에 와서는 「불(佛)」국교로 하였다.

《남가 태수전》에 이르기를:

“지난 상사일에는 저는 영지부인을 따라서 선지사를 지나 천축원에서 우연이 파라춤을 추는 것을 보았지요.....또 7월16일에는 효감사에서 상진자를 모시고 계현법사의관음경 강술을 들었는데<sup>27)</sup>”

26) 金兆豐, 《中國通史》:

有名僧玄奘出, 以唐太宗貞觀三年, ...以入印度, 周歷百餘國, 徧探聖跡, 訪名師, 遂齋經 典六百五十餘部, 以歸長安. 太宗嘗留居禁中, 命就院翻譯, 親爲作三藏聖教序. 高宗爲撰 述聖記, 創大慈恩寺, 命奘居之”. 奘譯經論凡千三百餘卷, 又撰西域記, 述其地理風俗, 最 爲翔實. 高宗咸亨二年, 義淨亦發中國, 航南海, 入印度, 二十五年後, 始歸國, 其間遊歷 三十餘國, 携歸佛典至有四百部之多云”

27) 昨上巳日, 吾從靈芝夫人過禪智寺, 於天竺院觀右延舞婆羅 .....七月十六日, 吾於孝感寺悟上眞子,

“남가의 허무함과 인생의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깨닫고, 마침내 도문에 귀의 하여 술을 끊고 여자를 멀리했다.”<sup>28)</sup>”

《남가태수전》에 등장하는 군선고제(郡仙姑媵)가 지난날 지나갔던 선지사(禪智寺)에서, 천축원(天竺院)에서 보았던 우연무(右延舞) 노파 라문(羅門)을 보았고, 7월 16일에 효감사(孝感寺)의 시종(侍從) 상진자(上眞子)가 계현법사(契玄法師)가 하는 관음경(觀音經) 강의를 들은 것 등은 모두 이른바 불가(佛家) 특유의 것이다.

더욱이, 결론 부분에는 아주 명확한 불가(佛家)적인 경향이 있다. 순우생이 인간 세상의 공허함을 깨닫고, 마음의 도를 닦으며, 주색(酒色)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말에 나타나있는 색공관념(色空觀念)도 불교 특유의 것이다.

《남가태수전》에서 설파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귀공명의 무상함이며, 공명이록(功名利祿)에 깊이 미혹되어 있는 인생관에 대한 비난과 풍자이다. 이 고사에 나타나있는 선지사(禪智寺)는 불법을 전하는 사묘(寺廟)인데, 이는 당시 불교사상의 전입과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당대에 이르러 개원(開元) 천보(天寶) 년간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공허함에 미혹되게 된다. 유학은 양한(兩漢) 이후부터 이미 날로 쇠락해져 갔고, 이 시기에는 들어서는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 졌으므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복잡하여지고, 그 복잡한 마음을 해탈하고자 하니, 이때 전래된 불학이 결국 당시 사상의 주류가 되었다.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사상은 「순우분이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고, 결국에는 마음의 도를 닦으며, 주색(酒色)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명성이나 지위를 가지고 천지간에 교만하지 말기를 바란다.(無以名位驕天壤間)」고 하였다.

청목정아(靑木正兒)는 《한단기》은 도교(道敎)를 귀착점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남가기》는 불교의 이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한다.<sup>29)</sup> 당현조(湯顯祖)는 50세 이후, 전통적인 석도(釋道)사상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었다. 《한단기》와 《남가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출세의 태도는 그의 초년의 사상과 현저하게 다르

聽契玄法師觀音經

28) 生感南柯之淨虛，悟人世之倏忽，遂棲心道門，絕棄酒色

29) 靑木正兒，《中國近世戲曲史》上冊，p.248.

다. 달관선사(達觀禪師)는 당현조가 중년기에 가장 존경했던 좋은 벗이다. 그는 당현조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 달관(達觀)은 비록 정치상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이었으나, 사상 면에 있어서는 이학(理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통적인 선사(禪師)이다. 그는 당현조에게 보내는 한통의 편지에서 당현조의 정(情)을 중시하는 태도를 반대하였으며, 아울러 성(性)을 정(情)보다 높다고 하였다.<sup>30)</sup> 당현조는 후에 불교에 입적하게 되는데, 이는 달관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당현조는 《남가태수전》을 개정하여 계현선사(契玄禪師)의 출연분량을 확대하였다. 계현(契玄)은 달관(達觀)일 가능성이 있다. 순우분은 잠에서 깬 이후에도, 마음 속 으로는 연연하여, 아직 정(情) 잊지 못 하고 있다가, 계현선사의 깨우침으로 인하여 마침내 초탈함을 얻는다. 마지막 계현이 순우분을 깨우쳐주는 두 착의 과정은 바로 작자의 희곡 작품의 주제를 명석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43작 「轉情」에서는 《남가기》의 사상적 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순우: 「땅강아지와 개미에게 어떤 변고가 생겨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 계현: 「그에게는 본래 그의 인과가 있는데, 이것은 간판만 바꾸는 것입니다.」
- 순우: 「소생은 대낮에 벌레에게 끌려가서 권속이 되었는데, 대관절 무슨 원인입니까?」
- 계현: 「그들은 모두 정이 있는데, 모두 조그마한 정으로, 은근히 타고난 선성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로 변방에 갈 자들을 늘렸는데, 선생이 정에 장애가 있어 예정대로 되었습니다.」
- 순우: 「몇 번 벌레와 정을 주고받았습니까?」
- 계현: 「선생이 효감사(孝感寺)에서 불법을 듣고 있었을 때에 제가 선생에게 무엇 여자가 보석과 비녀가 든 금함(金奩)을 가지고 와서 바쳤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 순우: 「헉! 소생은 그가 땅강아지와 개미인 줄 몰랐습니다. 대사께서는 어찌 일찍이 도로 파하지 않았습니까.」
- 계현: 「당초에는 정이 남아 있어서, 그가 벌레인 줄을 몰랐으나, 지금은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에게 정이 있습니까?」
- 순우: 「알아 버렸는데 또 무슨 정을 구하겠습니까.」<sup>31)</sup>

30) 《紫柏老人集》卷23, 與湯氏義仍書: “夫近者性也, 遠者情也, 味而恣情, 謂之輕道”

31) 《湯顯朝集》: 淳于: 「螻蟻怎生變了人?」

契玄: 「他自有他的因果, 這是改頭換面.」

이에 순우분은 이미 마음을 돌릴 뜻이 있었으나 완전히 갠 것 같지 않았다. 고로 계현은 또 44칙 「정진(情盡)」 중의 환상과 허구를 통하여 순우분의 친 권속(眷屬)들이 하늘에 오를 때 하나하나씩 나타나게 하였으며, 그 정에 대한 고뇌를 통하여, 그의 깊은 정을 잘라 버림으로서, 그로 하여금 불가(佛家)로 출가하게 한다. 「정을 다하는 것(情盡)」은 정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없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착(齣)에 있어서, 순우는 공주가 장차 천계에 오르는 것을 본 순간, 그 치맛자락을 잡고 통곡하며, 「나도 꼭 당신을 따라 하늘나라에 가겠소.» 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계현이 보검으로 그 사이를 자르면서 하는 말이:

“「북망강남(北望江南)아! 당신은 오히려 땅을 박차고 하늘에 오르는 것을 당신의 처라고 하며, 용감하게 머리를 쳐들고 거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가 벌레임을 간파했다고 해놓고서, 어디에서 정을 구합니까? 어떻게 또 이와 같은 연민이 생깁니까? 아, 당신은 눈을 크게 뜨고 대괴궁(大槐宮)에서 얼마나 잤는지를 보세요. 종이를 꼬아 만든 것(紙撚兒)은 재채기(噴嚏)를 할 줄 모릅니다.. 당신은 어리석음에 매료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오히려 서합(犀盒)안의 금비녀를 어떻게 들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순우분이 깨어 서합에 들어있는 금비녀를 보고 크게 놀라: 「아, 금비녀는 해나무 가지였고, 작은 합은 해나무로 짠 상자였네! 췌! 이런 것을 어디에 쓰겠어?」 비녀함을 던지면서 말하기를: 「저 순우분은 이제야 깨어났습니다. 인간 세상의 군신권속(君臣眷屬)들이 벌레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일체의 고탐 흥쇠(苦樂興衰)가 남가와 다른 것이 없네요. 이러한 꿈 속에서 어디로 승천할 수 있는가요? 중생은 늘 열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기만 합니다.」 계현은 순우분이 이미 출가했음을 알았다. 계현: 「당신은 어떠한 것을 기다립니까?」 순우: 「제가 어떠한 것을 기다려 부처가 되기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계현이 마시기를 멈추고 말하기를: 「헛 것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손 벽을 치면서 웃고 있고, 함장하고 바르게 서서 말이 없는 것입니다.」 계현이 드디어 크게 소리 내어 이르기를: 「순우생이 땅을 던고 성불이 되었

淳于: 「小生青天白日, 被蟲蟻扯去作眷屬, 却是何因?」

契玄: 「彼諸有情, 皆由一點情, 暗增上駭癡受生邊處, 先生情障, 以致如斯。」

淳于: 「幾曾與蟲蟻有情來?」

契玄: 「先生記的孝感寺聽法之時, 我說先生爲何帶眷屬而來, 當有二女持獻寶釵金盒, 卽其人也。」

淳于: 「咳! 小生不知他是螻蟻, 大師怎生不早道破也。」

契玄: 「當初留情, 不知他是螻蟻, 如今知道了, 還有情於他嗎?」

淳于: 「識破了又討甚情來」

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정(情)이었던 것이 불(佛)이 된 결과이다.<sup>32)</sup>

《남가기》에는 농후한 불가 사상으로 덮여져 있으며, 선문설법(禪問說法)의 기봉(機鋒)이 수두룩하다. 계현선사가 노래하기를: 「취죽황화(翠竹黃花)의 일은 다르나, 중생은 모두 북쪽을 향해 두 손을 맞잡을 뿐, 과연 동쪽을 향하지는 않는다.(翠竹黃花事不同,但是衆生皆嚮北,果然無水不朝東)」, 다시 태어나서 부터 「가지가지의 취죽은 모두 불신(佛身)인데, 화려한 노란 꽃이 설마 반야(般若)는 인가?(般般翠竹盡是法身,鬱鬱黃花莫非般若)」 심지어 선사가 답문한 기봉(機鋒)도 경덕전(景德傳)에 등록(燈錄)되어 있는 것에 기원한다. 기실은 노선사(老禪師) 본인도, 불법신(佛法身)의 현상기설법(現相機設法)에 응한다. 소위 「여러 가지 법신에 따라 바뀐다는 인연설법(種種法身隨化,因緣說法)」을 제외한 선기(禪機)외에, 아직 불교적 신비스러운 사상에 융합되지 않은 천안통(天眼通)과 같은 삼세인과(三世因果)를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노승의 지혜로운 눈으로 살펴본, 사람의 외모는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서서 성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老僧以慧眼觀看,此人外相雖癡,倒可立地成佛)」와 「여러 가지 색이 모두 비었으며, 만 가지 법을 알길이 없다.(諸色皆空,萬法有識)」 등 불가의 사상이 《남가기》의 정절을 관찰하고 있다. 탕현조는 인간 세상의 무상 무정함을 그려 냈고, 인생에서 부귀공명을 쫓는 허망함을 경계하며, 불가에 귀의하는 주제 사상을 매우 생동감이 있고 씩진하게 그려냈다.

32) 《탕현조집》: “北望江南 呀! 你則道拔地升天是你的妻, 猛擡頭在那裏? 你說識破他是螻蟻, 那討情來? 怎生又是這般戀? 「嘆介」你掙著眼大槐宮裏睡多時, 紙撚兒還不會打噴嚏. 你癡也嗎癡. 你則看犀合內金釵怎的提?」淳于棼醒看犀合金釵, 大吃一驚.. 「呀! 金釵是槐枝, 小盒是槐篋子. 啐! 要他何用.」拋釵盒而言.. 「我淳于棼這才醒了, 人間君臣眷屬, 螻蟻何殊? 一切苦樂興衰, 南柯無二. 等爲夢境, 何處升天? 小生一向好癡迷也.」契玄知道淳于棼已可度, 契玄.. 「你待怎的?」淳于.. 「我待怎的? 求衆生身不可得, 求天身不可得, 便求佛身也不可得, 一切皆空了.」契玄喝住云.. 「空個甚嗎?」生拍手笑介, 合掌立定不語介 契玄終大叫云.. 「淳于生立地成佛了!」這就是情了爲佛的結局.

#### 4.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과 《남가기(南柯記)》의 寫作技巧

《남가태수전》의 정절은 《침중기》에 비하여 더욱 복잡하다. 《남가태수전》의 작자는 현실 관점과 초현실의 관점을 적당히 섞어가며 운용하고 있다. 「그것들은 인간 세상에서 보는 것들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與人世甚殊)」, 「경은 본래 인간이었으며 집이 이곳에 있는게 아니었노라(卿本人間,家非在此)」 작자는 주인공을 데리고 몽경(夢境)으로 들어갔다가 몽경 밖으로 나왔다가, 몽경 밖에서 몽경을 바라보기도 한다. 「그는 마음 속으로 아버지가 변방에서 장수로 계시다가…… 정신이 몹시 혼미하여(意以爲父在邊將...心甚迷惑)」 「그에게는 평소에 술친구였던 주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生有平生酒徒周弁者)」 「그대는 품익의 전자화가 아니오?(子非馮翊田子華)」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이곳에 오게 되었소?(子何以居此)」 주인공은 몽경에 들어온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는 현실 중의 일들을 기억한다. 「모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로다(皆非世間所有)」 「속세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非人間之所聞聽)」 「나이는 14~15세 가량 되었고, 모습은 마치 신선과도 같았다(年可十四五,儼若神仙)」 작자는 인간의 욕망을 순우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무릇 얻기 어려운 것은 모두 초현실의仙境(仙境)이나 몽중(夢中)에 존재한다. 또 「그해 정축년에는 너와 만나게 될 것이다(歲在丁丑,當與女相見)」 「정축년에 그도 자기 집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歲丁丑,亦終於家)」의 안배에서는 작자는 불가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사람이 죽은 후에 명계(冥界)에서 만난다는 말이다. 작자는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들며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본 고사는 몽경을 가지고 현실화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작자는 독자에게 현실과 몽경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순우분이 꿈에서 깨어난 후 두 친구를 불러 왜나무 밑을 파 보았더니 꿈속에서의 성곽과 궁전의 모양을 찾아볼 수 있었고, 일체는 몽경과 딱 들어 맞으니 꿈이 진실인 것이다. 순우분 일행이 개미굴을 파 볼때, 개미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순우생이 몽경에서 천상의 꾀적의 징조로 축출당한 이야기와 부합된다. 순우생에 서도 개미나라에 재해를 가져다준 것이다. 이 부분이 또한 작자의 사작기교(寫作技巧)가 출중한 부분이다. 만약 순우생이 나무 밑을 파보았을 때 확인한 것이 없었다면 그냥 하나의 꿈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가허실(眞假虛實)이 섞여져 사용되는 작법은 독자들에게 큰 자극을 주게 된다. 또한 깊은 감동을 주어 작품을 읽은 후에, 인생에 대하여 일대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초현실로 갔다가 다시 현실에 이르는 우회적이고 복잡한 수법은 절대 단순한 정절의 몽경소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남가태수전》의 전문(正文)의 뜻은 마지막 의론(議論) 문자에 나타난다 : 「 그러나 벼슬자리를 도둑질하여 탐생하고 있는 무리들에게는 경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다. 후세의 군자들은 이 남가의 꿈을 우연한 일이라고 무시하고 명성이나 지위가 있다고 해서, 이 천지간에서 교만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而竊位者生, 冀將爲戒, 後之君子, 幸以南柯爲偶然, 無以各位驕於天壤間云)」 이조(李肇)가 찬(讚)하기를 … 「부귀가 자극하고 권세 나라를 움직여도, 달인의 눈에는 개미의 무리와 무엇이 다르리 (達貴極祿位, 權傾國都, 人視此, 蟻聚何殊)」 원래 인류의 모든 욕망과 생활방식 등은 개미와 다름이 없다. 만약 인류가 사람들의 생활권에서 탈출하여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 개미굴과 같을 것이다. 본 고사의 소극적 의의로는 권세와 부귀를 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풍자하고 있다. 적극적 의의로는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는 것이니, 또한 나무 밑의 개미들과 같이 풍우가 닥치면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것임을 인간들이 깨우치기를 바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불교 사상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 노인의 지시를 얻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남가태수전》의 내용 가운데 의국(蟻國)은 인간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개미떼의 집산(集散)은 인간 군상들이 부귀 공명을 쫓는 모습이다.

《남가기》는 전체가 44작(齣)이다. 순우분은 10작의 구성으로 진행된다. 《남가기》의 몽(夢) 운용과 《한단기》의 몽 운용은 비슷하며, 단선(單線)의 방식이다. 《환혼기》의 쌍선(雙線) 방식의 몽 운용보다 더 훌륭하다.

《남가기》의 28작 「우진(雨陳)」에는 순우분은 남가군을 지키기 위하여 외부

에 있었고, 그 처와 아이들은 요대에서 피서를 하고 있었다. 그가 잠을 자는데 아들이 꿈에 나타나 모시(毛詩)를 읊었다. “황새가 언덕에서 울고 있으며, 부인은 방에서 탄식한다.(鶴鳴於址, 婦歎於室)” 이 시를 전사농(田司農)이 해석해 주었다. “비가 오려고 하니 개미가 개미굴에서 나오고, 황새는 개미를 먹기 좋아하니, 춤추며 날아오고 있습니다. 부인이 방에서 탄식한다는 구절은 공주가 어려운 일이 생겨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시경의 〈동산(東山)〉이라는 시인데, 시의 내용이 전쟁의 일입니다.” 27작 「규경(閨警) 중에는 단라병(檀蘿兵)이 쳐들어 와서 요대를 괴롭히는 일이 나타나 있다. 순우분이 몽중(夢中)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의 편지가 왔다. 사실과 꿈에 나타난 부분이 부합되었다. 《남가기》는 꿈이 중요한 구성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몽중(夢中)의 몽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학에 있어서 꿈의 구성을 운용하는 사작기교는 아주 훌륭한 표현방식이다.

## 5. 결론

《남가태수전》과 《남가기》의 작자 이공좌와 탕현조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운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소설과 희곡을 통하여 소원의 만족을 이루게 된다.

순우분은 꿈 속에서 변방 장수로 계신 아버지의 추천으로 금지공주(金枝公主)와 혼약을 맺고, 부마(駙馬)가 되어 영화로운 세상을 보낸다. 이것은 당대 시대 배경이 잘 반영된 부분이다. 바로 진사과(進士科)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던 때이며, 음보입사(蔭輔入社)의 경향을 보이던 시대이다. 오성녀(五姓女)를 비롯한 문벌 귀족과의 혼인의 폐단이 지적되며, 황실 공주와의 혼인이 개선되어 가던 시대에 씌어졌으므로, 이러한 당대의 시대배경이 작품 안에 잘 반영되었다.

《남가기》에도 순우분을 통하여 자신의 추구했던 공명이록의 쓰디 쓴 실패의 길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명대의 암울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즉 명대 사회의 사대부들이 팔고문에 치중하여 복고주의에 길을 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침중기》와 《한단기》가 도교의 경향이 짙은데 비하여, 《남가태수전》과 《남가기》는 불가사상을 중심사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가태수전》과 《남가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현실에서 불운한 인생을 살다가 꿈 속에 들어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 꿈에서 깨어나니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인간세상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것이다. 《남가태수전》과 《남가기》는 인생의 공명이록의 허무함을 풍자하는 우언고사(寓言故事)이다.

#### 《參考文獻》

- 魯迅, 《中國小說史略》, 香港: 三聯書店, 1958.  
譚正璧, 《中國小說發達史》, 啓業書局, 1978.  
劉大杰, 《中國小說發展史》, 華正書局, 1980.  
劉開榮, 《當代小說研究》, 香港: 商務印刷館, 1976.  
祝秀俠, 《當代傳奇研究》, 中華文化出版社, 1957.  
王夢鷗, 《唐人小說研究》, 臺北: 藝文印書館, 1971.  
吳持達, 《唐人傳奇》, 上海: 古籍出版社, 1981.  
劉瑛, 《當代傳奇研究》, 正中書局, 1982.  
吳梅, 《中國戲曲概論》, 學海出版社.  
王國維, 《宋元戲曲史》, 藝文印書館.  
青木正兒著, 王吉로譯, 《中國近代戲曲史》, 商務印書館.  
張庚, 《中國戲曲通史》, 丹青.  
孟瑤, 《中國戲曲史》, 傳奇文學史印行.  
青木正兒著, 江俠庵譯, 《南北戲曲原流考》, 臺灣: 商務印書館.

### 〈中文提要〉

“夢幻誅仙”小說《枕中記》和《南柯太守傳》是唐代傳奇小說的代表作。明代戲劇中，湯顯祖的《四夢傳奇》是以夢境為題材的戲劇作品。其中，《南柯記》取材于《南柯太守傳》，《邯鄲記》取材于《枕中記》，這兩部作品所表現的是情生情幻、亦真亦假的人生夢幻路。在本論文中，對《南柯太守傳》和《南柯記》的時代背景、主体思想和寫作技巧進行了比較。《南柯太守傳》的作者李公佐和《南柯記》的作者湯顯祖，在現實生活中沒能實現自己的意向，過了怀才不遇的人生。這跟作者所生活過的社會背景有關。他們以“夢”為題材，通過小說、戲劇的形式表現了現實的厭世情緒。二劇借夢中之景，寫現實之事，舉凡社會的病態，人情的險詐，官場的黑暗以及知識分子的种种心理活動，均躍然紙上。劇本布上了一層“色即是空”，“浮世芬芬蟻子群”的佛家和道家思想的迷霧。寫作技攪也是，通過‘人生若夢’為主題的夢境運用方式表現了人生如夢、富貴如烟的思想。

**關鍵詞**： 남가태수전, 남가기, 몽소설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0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